

2023년 05월 0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잠언 22장 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10(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3 1~17절(신약p.783)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 말씀선포 /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욥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 하소연합니다. 이 두려움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근원적이며 영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큰 환난을 작정하셨을 것 같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욥은 하나님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본문 8~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메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기에 고난을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빔어 주시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기대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연단 받아 더욱 확실해졌으며 그의 순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빔어질 것을 기대하며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계획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니다. 왜 이러한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거두기로 작정하신 시간이 되기까지 그분의 뜻을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그의 고난이 끝나는 시간을 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한없는 경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앞에서는 스랍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 이처럼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함과 능력 그리고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해 경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며 그분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닦아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계시며, 주를 찾아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수 없어 두려워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언제나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48년 전 이곳에 성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코로나19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고난 앞에서 힘을 잃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의 몸 된 교회에 나올 때,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위로하셨으며, 새 힘을 주사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 성현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고 뜻을 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 주신 달란트로 섬기며 봉사하는 신실한 헌신자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로 교회를 더욱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고 받은바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에 합당한 선한 일꾼들로 사명을 감당해 이 땅에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08(통246)장 내 주의 나라와

◎ 폐 회 / 주기도문